

中 월병, AI 재유행 가능성에 수출 '비상' FAO "중국 등에서 AI 재발 우려", 각국 중국산 월병 규제 강화

출처: 연합뉴스



중국의 중추절 상징 음식인 월병(月餅)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길이 막혀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호주 당국이 중추절을 앞두고 중국산 월병의 자국 내 반입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광주일보(廣州日報)가 지난 9월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최근 중국인들이 월병을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 늘자 월병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6만 호주달러(6천8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뿐 아니라 영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스페인 역시 월병 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월병 유입에 민감한 것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AI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FAO는 지난 8월 29일 성명을 통해 백신이 통하지 않는 'H5N1'형 바이러스 변종이 중국과 베트남에 확산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올 가을과 겨울 AI가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AI의 자국 내 전염을 막기 위해 계란이나 닭고기 등을 주재료로 삼는 월병 반입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월병은 이미 H5N1 바이러스

변종이 유행했던 2008년 이후 세계 각국이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한 차례 흥역을 치른 바 있다. 2009년 미국이 식품안전법을 강화, 월병 수입을 규제했고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 일본 등도 계란이나 닭고기 등이 들어간 월병 수입을 불허, 해외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겨냥했던 월병 수출길이 막혔다. 이 때문에 당시 월병 업체들은 최대 성수기였던 중추절을 앞두고 반 값 세일에 나서는 등 내수 시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중국의 월병 생산업체들은 올해 중추절을 앞두고 또다시 각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자 벌써부터 판매 부진을 고민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성을 이유로 각국의 식품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AI라는 복병까지 나타나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며 "중국의 중추절 상징 음식인 월병의 세계 진출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각국이 표면상으로는 위생 안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 식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명백한 보호무역주의"라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오리, 거북, 너구리도... '피자 먹는 동물들'

출처: 팍뉴스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도토리를 즐기는 다람쥐도, 심지어 인스턴트식품은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너구리도 '피자'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쓴다. 오리, 거북, 라쿤 등의 동물도 피자를 '계걸스럽게' 먹고 심지어 어떤 동물은 피자를 훔쳐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다. '피자 먹는 동물들'의 영상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영상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공통점은 '피자'를 마구 먹는다

는 점. 천하의 느낌보로 알려진 거북 한 마리는 피자를 입에 물고 사력을 다해 도망치느라 바쁘다. 또 가정집에 침입한 너구리 세 마리는 피자 맛을 본 후 피자를 훔쳐 정신없이 달아난다. 공원의 다람쥐 또한 피자를 훔쳐 황급히 달아난 후 먹어치우고, 고양이 한 마리는 주인 무렵 사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자에 손을 댈다. “피자의 어떤 맛이 동물들을 사로잡았을까?”라며 네티즌들은 궁금증을 표시한다. 또 “인스턴트 음식에 중독되기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한가지”라고 영상을 본 이들은 말한다.



멸종위기 ‘필리핀 오리’...피난처 조성

출처: 헤럴드 생생뉴스

지금 필리핀 정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오리 지키기에 나섰다. 필리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지난 9월 6일 필리핀 환경 당국이 최근 동부 농업지대인 카부사오 지역에 필리핀 오리 보호를 위한 27헥타르 규모의 습지대 자연번식지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오리’는 이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은 과도한 사냥과 농장에서의 살충제 사용 등으로 멸종 가능성을 경고해왔던 종이다. 현재 매년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5000여 마리 정도가 남아있다. 머리 정수리 주변과 눈에 계피색 줄무늬가 있고 부리가 푸른 회색인 것이 특징이다. 새우와 물고기, 곤충 등을 주로 잡아먹고 식물류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필리핀 오리’가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했음을 각인시키며, 각 지자체에 필리핀 오리의 주요 번식지와 주변 생태계 보전 지시를 내렸다.

